

LG필립스 LCD 파주공장 준공식 축사

존경하는 손학규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민과 파주시민 여러분,
그리고 국내외 기업인과 귀빈 여러분.

LG필립스 LCD 파주공장의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

생각 같아서 제 축사 빼고 조금 전에 봤던 공연을 한 5분쯤 더 봤으면 좋을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만, 준비된 순서니까 제가 열심히 축사를 하겠습니다. 축사 순서가 뒤에 있다는 것은 매우 불리합니다. 잔뜩 적어 왔는데 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.

기업이 공장을 준공하는데 대통령이 온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. 그러나 오늘 저는 올만하다 싶어서 왔습니다. 우리 모두가 기뻐할 일이기 때문입니다. 개인적으로 약간의 인연도 있어서 왔습니다. 이 공장 부지를 결정할 때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했는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보니 참 잘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손학규 지사님, 정말 기쁘시겠습니까. 이거 해 달라고 때를 그렇게 쓰시더니 이제 만족하십니까?

이 자리에는 창조와 도전이 있습니다. 창조와 도전이 역사를 만듭니다. 저는 오

늘 다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,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창조와 도전이 우리 한국을 이제 선진한국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 한국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. 온 국민과 함께 정말 기뻐할 일입니다. 많은 사람들의 땀이 이 자리에 함께 엉켜 있습니다.

이 엄청난 일을 기획하고 결단하실 때 얼마나 고심이 많았겠습니까? 저는 기업에 투자하고, 또 투자한 기업이 이득을 얻는 일을 도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. 도전은 항상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한 사람에게 큰 대가가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야말로 큰 출발을 하는 LG필립스에 대해서 크게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.

조금 전에 우리 손학규 지사께서 하나하나 소개하셨듯이 중앙정부, 경기도, 파주시 등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렸습니다.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양보했습니다.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루어진 오늘의 준공입니다.

저는 그것이 우리 전 국민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미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오늘 이 LG필립스 LCD공장의 준공이 한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그야말로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.

물론 어려운 곳도 많이 있습니다. 아직 우리가 보살펴야 될 어두운 곳도 많이 있습니다. 우리 한국이 아주 앞서가는 곳이 있으면 함께 가야 될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. 기업하시는 분들은 기업을 열심히 해 주시면 어려운 분들은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챙기겠습니다. 열심히 성공하셔서 세금 많이 내시고,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그 세금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땀 흘리겠습니다.

거듭 준공을 축하드리며, 계속 창조하고 혁신하고 도전해서 세계 1등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.